❶

# 한데 모인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

**글** 문예진 **사진** 조채은

❷

## 도심 속 아름다운 한옥박물관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도보 3분, 창덕궁 건너편으로 대뜸 아름다운 한옥이 나타난다. 키 높은 주위의 도시건물들을 배경으로 당당히 펼쳐진 곡선의 기와가 오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뺏는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옛 소리가 모여있는 국내 최초의 민요 전문 박물관이다. 향토민요와 잘 어울리는 전통 한옥박물관의 자태가 관람 전부터 설렘을 안겨준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우리민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되었다. 아담한 외관과 달리 지하 3개 층으로 이루어진 넓은 전시관은 전시공간, 감상공간, 교육공간, 아카이브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람객들은 국악공연과 만들기 체험, 특별전과 야간개장 등 관람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민요를 경험할 수 있다. 입구의 안내데스크에서 관련 팜플렛과 국악인 송소희의 상설전시 해설 오디오를 대여할 수 있다.

## 민요, 사라져가는 옛 삶의 기록

과거에 민요는 어디서나 들려오는 생활 속 소리였다. 하지만 현재는 쉽게 들을 수 없고, 들리지 않는다. 민요를 '소리'라고 부르는 것도 노래의 역할을 넘어 목소리와 같은 일상의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시는 우리 민요를 '사라져가는 옛 삶의 기록'이라 정의하며 시작한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은 민요로 불리어 왔다. 탄생과 사랑, 노동과 죽음의 주제에 따라 <자장가>, <남도령과 서처녀>, <밭가는소리>, <상여소리> 감상을 이어간다.

지하 전시관으로 이동 전 누마루에 들린다. 누마루는 민요 도서관으로, 전시를 미리 체험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좌식으로 앉을 수 있는 넓은 마루와 몇 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진 공간은 한옥의 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자리마다 스크린과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들을 들을 수 있다. 한편에는 민요 관련 유물과 서적이 가득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현대의 방식으로 듣는 우리소리

지하 1층의 상설전시관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한다. 전국각지에서 이곳으로 모인 수많은 전통 소리가 각종 첨단 기법으로 전시되어있다. 인공의 조명이 민요의 주제에 맞춰 움직이고, 스크린으로 다양한 민요 속 상황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민요에 맞춰 장구치기를 할 수 있고, 지역별 뱃노래를 들을 때는 옛 조상들이 타던 실제 크기의 고기잡이배에 앉아 감상의 시간을 갖는다.

하이라이트는 중앙의 거대한 조이트로프다. 화면의 민요 퀴즈를 맞히면, 웅장한 조이트로프가 작동하면서 입체영상이 펼쳐진다. 함께 나오는 민요에 맞춰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이 전시실을 울린다. 전시실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민요는 직접 녹음된 소리다.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은주, 안비취, 묵계월 등 민요 무형문화제 명인들의 소리도 감상할 수 있다.

지하 2층의 음반전시와 영상감상실, 본관 외부의 특별전까지 오감이 즐거운 관람의 끝에 우리의 소리와 전통에 한발짝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선조들의 삶을 듣는 시간은 현재를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하는 경험이다. 귀를 울리는 소리가 서서히 가슴을 울리는 곳,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 우리소리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껴본다.

❶ 향토민요와 잘 어울리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한옥 외관
❷ 박물관 1층의 민요 도서관 누마루
❸ 관람객들은 전시관 곳곳의 헤드폰으로 모든 민요를 들을 수 있다
❹ 집안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를 모아놓은 전시관
❺ 지하 1층의 상설전시관은 각종 첨단 기법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❻ 민요에 맞춰 직접 장구를 치는 체험 전시
❼ 원하는 민요를 고르면, 노래에 맞춰 조명이 움직인다